

## 201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2.27(목) 15:00~16:30

###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 보도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해야

- 인용보도에 관한 문제로 지난 1월 26일 기사에서 '변호인, 변호사를 회상하다'는 제목의 보도였는데 내용은 법률신문에 김앤장 변호사 한분이 나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었음. 이때 기사 내용이 어디에서 보도된 내용인 것인지 출처가 불분명했음. 보도내용자체는 좋았으나 인용보도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실제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함(최진영 위원)
- 인터뷰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1월 12일, 19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 처음 12일 위장간첩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장성택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내용은 매우 신뢰도가 떨어져 보였음. 탈북자 선정에 더욱 신경써주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1월 19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 김철진 이라는 탈북자는 질문을 해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질문을 했으며 정보원으로는 부적절했음. 대답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인터뷰 대상 선정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양승찬 위원)
- 2월 9일 일본공무원 스파이 설은 출연한 분이 시사평론가였음. 취재기자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인터뷰 대상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두 달간 뉴스에서 역술인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뉴스Y에서 왜 역술인에 기초해서 보도를 하는지, 뉴스채널에서 다룰 필요가 있었는지 또 역술가의 정치평론에 의존하는 보도를 할 것인지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연합뉴스가 직접 만드는 TV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들은 통신사가 만드는 TV가 얼마나 강력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잘 모르므로 뉴스통신사가 직접 만든다는 것을 강조해야함(강대인 위원장)

#### ▲ 화면구성 개선필요

- 화면 하단에 뉴스구분을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등 분야별로 나누어 준다면 시청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성낙용 위원)
- 아침뉴스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기 때문에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야외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성낙용 위원)
- 1월 29일 3시 뉴스1번지에서 카메라가 앵커의 오른쪽에서 전신을 잡고 뒤에서

- 한쪽에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앵커를 화면에 잡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방송사고 인줄 알았는데 의도된 편집으로 화면을 구성한것인지 의문이 감(양승찬 위원)
- 자막과 화면의 인물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였음.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더욱 써줬으면 함(이용우 위원)
  - 아침뉴스에서 앵커들이 서서 진행하는 스탠딩진행인데 진행 중 서서 테이블을 돌아 좌석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매우 어색해 보임. 표정과 걷는 모습, 발걸음도 어색하며 의자의 등받이도 지나치게 넓어보였음. 꼭 서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앉아서 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해보고 싶음(최현철 위원)
  - 연합뉴스와 뉴스Y가 융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해외특파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크지 않고 뉴스 끝날 때에도 화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자가 마이크를 빼면서 정리하는 모습 매우 어색해 보였음(김용주 위원)
  - 채널명 뉴스Y와 법인명 연합뉴스TV가 화면과 기자의 마이크에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화면이 복잡해보임. 채널명 알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뉴스Y로 통일했으면 좋겠음(성낙용 위원)
  - 흐름자막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계속 흘러서 시청시 정리가 되지 않음. 색상도 선명도나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뉴스특보 제목과 자막화면이 일치가 되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화면은 계속 나가고 있었음. 화면을 보는 내내 불편하고 실시간으로 흐르는 자막 또한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고 자막과 화면을 일치시키는 것을 더욱 노력해줬으면 좋음(이용진 위원)

#### ▲ 외래어 및 잘못된 표현 등 개선필요

- 외래어의 사용도 많고 불필요한 한자의 사용 또한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함. 방송에서 약어의 사용하는 것보다는 풀어서 써야 의미 전달이 잘되므로 불필요한 약어 사용은 지양해야 함(강대인 위원장)
- 1월 19일자 백보영기자의 관광관련 보도기사에서 대전특별시라는 자막오류 내용이 있었는데 주의가 필요함(성낙용 위원)
- 2월 22일 일본 타케시마의 날 강행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연구소장 인터뷰 배경이 일장기에 타케시마 표기한 독도 모습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음(양승찬 위원)
- 선거와 관련된 보도시 지지도강화 내용이 간혹 등장하는데 지난 2월 22일 1시 45분경 민주당 지지도 변화와 관련한 그래프는 20-22%의 지지도를 넘나드는 변화를 마치 지지도가 급변하는 것처럼 요란한 그래프로 보여주었는데 향후 선거관련 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과대 표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함(양승찬 위원)
- 자막은 문장자체의 뜻도 모를 정도로 자막이 짧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최현철 위원)

- 프로그래밍이 외국어의 남발이 많음. 예로 시사터치, 뉴스워치, 뉴스다이제스트, 뉴스리뷰 등은 외국어이고, 금메달을 못 따는 '노메달'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인지 국적 없는 외래어의 사용도 많음. 국어학자의 도움을 받는 등 뉴스Y에서 언어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최현철 위원)

#### ▲ 프로그램편성 및 기획의견

- 편성문제를 말하자면 뉴스Y는 후발뉴스채널로써 선발뉴스인 지상파 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상파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에는 정시에 시작하지 않았음. 뉴스Y의 편성은 뉴스시작 시간이 매우 이른데 오전에 시작하는 뉴스와 오후의 뉴스는 시작시간이 들쭉날쭉 함. 40분 뉴스라든지 50분 뉴스로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강대인 위원장)
- 뉴스Y 는 매시간 50분에 뉴스를 한다는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심어준다면 편성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강대인 위원장)
- 재난보도시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난보도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계속 시청자에게 인식되도록 했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해외다큐의 시간은 자정이 넘어 늦은 시간이라 시청이 어려운데 시청가능한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은 어떨지(강대인 위원장)
- 교통정보는 전국으로 나가는 짧은 정보인데 지방에 있는 시청자가 서울수도권의 교통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지역사람들에게는 매일 막히는 서울수도권의 교통상황은 도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들이 실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식적 수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건강뉴스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 같음. 뉴스Y뿐만 아니라 타 채널들 역시 건강뉴스가 많은 추세인데 '호주대학의 커피 4잔 마시면 건강에 도움 된다.' 는 내용 등 검증 되지 않은것 같은 뉴스를 내보내는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함(최현철 위원)
- 1월 26일 지방자치단체파산제에 관한 내용 보도에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웠음. 같은 날 타채널 이슈분석 코너의 동일한 내용 보도에서는 지자체단체파산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현황, 해외입법 사례들을 보여주었음. 중요하고 생소한 내용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넣는다던지 자체에 대한 개념설명을 해준다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것(최진영 위원)

#### ▲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

- 두 달간 모니터를 해본 결과 뉴스Y와 타사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 어느 채널을 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타 채널간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고 가깝다면 중

- 편의 보도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음(이용우 위원)
- 뉴스Y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류해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정치 32% 경제 13% 사회 25% 기타 스포츠 국제 날씨등 30% 정도 되는것 같음. 정치와 사회를 합하면 약 60% 가까이 될 정도로 뉴스Y의 압도적인 정치 사회분야에 치중된 편성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용우 위원)
  - 특히 경제는 얼핏 보기에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시청자들에게는 서민경제만큼 중요한 관심사는 없음. 타 매체에서도 경제를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적은 셈이므로 뉴스Y에서 서민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비율을 높인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용우 위원)
  - 연합뉴스와의 협업으로 해외 특파원의 해외뉴스의 강정을 살려 해외뉴스비중을 높이는 것도 차별성을 갖추는데 도움 될 것(이용우 위원)
  - 경제뉴스를 자세히 보았더니 대부분 정책관련, 비판기사 위주였음. 시청자들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얼마나 있을까 실제 관심과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음. 부동산 금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룬다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용우 위원)
  - 뉴스리뷰는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일반뉴스와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날 주요한 심층적인 내용을 차별화해 리뷰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음(이용진 위원)
  - 연합뉴스의 해외취재망의 장점을 크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음. 국제뉴스가 강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차별성을 갖았으면 함(최현철 위원)
  - 탐사보도프로그램 '지방시대플러스 등은 단조롭게 짧게 전달되어 지역의 특색을 다 담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제작여건을 고려해서 탐사보도프로그램을 정례회해서 제작해보면 차별성을 갖게 될 것(강대인 위원장)

**▲ 주요 사건사고보도시 속보성 현장성 중요**

- 2월 17일 경주 리조트 시설 붕괴사건 사고는 광고를 중단하고 속보로 전달해서 속보로서는 적절해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타채널과 비교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함. 긴급뉴스 발생시 대응하는 체계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밤 12시경 현장에 파견된 취재기자는 제대로 사고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고 화면이 넘어갔음. 비상사태에 대한 재난보도훈련이 필요해 보임(양승찬 위원)
- 경주 사건의 경우 타채널보다 속보성이 다소 떨어진 것 같았음(이용진 위원)

**▲ 기타 의견**

- 인터뷰할 때 주소지 자막 안내시 정부에서 시행중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좋을 것(성낙용 위원)
- KTX에서 나오는 뉴스를 일반 이어폰으로 청취해보니 음질이 매우 불량했음. 다른 채널은 음질이 좋았으나 뉴스Y만이 빠~하는 잡음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음질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함(최진영 위원)

- 뉴스Y의 스크롤은 옆으로 흐르는 방식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 가독성이 더 좋지 않은지 궁금함(이용진 위원)
- 2월 13일 미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신조선침략'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시의성이 높고 적절했음(양승찬 위원)